



CONTENTS

❖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수행 과제

- 2차년도 연구과제
- 3차년도 연구과제
- 중등 단계 직업교육 규모(비중) 적정화 워크숍

❖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운영 활동

- 진로직업교육 정책포럼
-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

❖ 진로직업교육 관련 이슈 및 해외 동향

- 진로직업교육 관련 국내 연구 탐색
- 진로직업교육 관련 해외 연구 탐색

❖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소식

- 연구센터 연구원 추가·변경
- 연구센터 향후 일정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수행 과제

2차년도 연구과제 소개

2015년도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기본과제 2개, 수시과제 3개, 수탁과제 1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연구보고서는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각 과제에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과제 1

중등단계 직업교육 적정규모 및 체제개편 방안 연구(II)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을 촉진하여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고, 직업교육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의 최적화 방향 및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의 최적화 방향은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관련 선행연구 분석,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 분석,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의 지속적 유지’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지원 방안으로 직업교육 학생 선발 방안,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직업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 방안, 직업교육 교원 수급 및 양성 방안, 직업교육 시설 및 기자재 개선 방안, 직업교육 재정 확보 방안, 직업교육의 질 관리 방안, 직업교육 정책 확대 및 강화 방안, 직업교육관련 법령 개정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기본과제 2

개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의 재구조화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II) : 진로체험기관 프로그램 질 관리 및 안전관리 방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진로체험이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진로체험기관의 프로그램 질 관리 및 안전 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진로체험기관 프로그램의 질 관리 방안으로 진로체험의 각 주체별 진로체험 사전-실행-사후-성과관리 각 단계에서의 역할 및 지원 체제(안)과, 진로체험기관 직군/직종 및 유형/규모별 운영 사례집 발간 및 보급 등의 세부 방안을 도출하였다. 진로체험기관 안전 관리 방안으로 정책측면, 제도측면, 체험활동 운영 측면을 제시하였으며, 교육부 차원의 진로체험 안전관리 목표 및 전략 수립, 진로체험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의 세부 방안을 도출하였다.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수행 과제

수시과제 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방안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입에 따른 도제학생의 안전과 근로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으로, 개정 조항(현장실습과 도제교육의 정의 조항 추가, 현장 실습 계약 체결 시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한 규정 강화)과 신설 조항(현장실습과 도제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을 제안하였다.

수시과제 2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중등직업교육 정책 추진체제 개편 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중등직업교육 정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중등직업교육 정책의 추진체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책 참여 주체 간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산업인력양성 관점의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개선, 안정적인 중등직업교육 재정지원체계 마련, 지속적인 중등직업교육 정책 평가를 통한 성과공유 및 확산 등의 개편 방안을 도출하였다.

수시과제 3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모델 연구

국내 진로교육이 학교급에 따라 체계화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초·중·고 특정 학년 또는 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운영 모델(안)을 제시하고, 모델의 주체별 역할과 교육과정 운영 방안, 운영 모델의 활용 절차를 제시하였다.

수탁과제 1

직업기초능력평가 성취기준 개발 및 활용 연구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실효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성취기준을 영역별 5수준으로 개발하고, 성취기준의 활용 방안으로 직업기초능력평가의 대상자 확대, 등급 체계 도입, 평가 횟수 증가, 평가 주관기관의 공신력 확보, 관리감독 체계 강화,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수행 과제

3차년도 연구과제 소개

2016년도 현재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는 기본과제 2개와 수시과제 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개요 및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과제 1

중등단계 직업교육 적정규모 및 체제개편 방안 연구(Ⅲ)

과제기간: 2015. 10. 16 ~ 2016. 10. 15

과제목적: 지역별 전략산업에 따른 고졸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를 재구조화 하는 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 진행상황: ① 지역별 전략산업에서의 고졸 인력 수요 예측 방법에 대해 검토 중이다.
 ② 특성화고등학교의 인력양성유형과 인원을 조사하고 있다.
 ③ 학과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 중이다.

기본과제 2

개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의 재구조화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Ⅲ)

과제기간: 2015. 10. 16 ~ 2016. 10. 15

과제목적: 교대 및 사대 양성과정에서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모형 및 운영 방안을 개발한다.

진행상황: 교육부와 과제 목적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진 상태이며, 연구계획서 작성 중에 있다.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수행 과제

수시과제 1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규모(비중) 수요 분석

과제기간: 2016. 03. ~ 2016. 08.

과제목적: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대졸자 초과 공급으로 인한 청년실업률 증가, 과잉 학력으로 인한 기회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등직업교육 비율을 확대하여 고졸 취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학생의 추가수요(일반수요 + 잠재수요)와 산업계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규모(비중) 확대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수시과제 2

중등학교 교사 자격 전문교과 표시과목 재구조화 방안 연구

과제기간: 2016. 04. ~ 2016. 06

과제목적: NCS 분류체계를 반영한 계열 재구조화(5계열→17교과군)에 따른 전문교과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교과 표시과목 재구조화(24→32개)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전문교과 표시과목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해당 자격 교사 양성기관의 기본이수과목을 확정하며, 교원양성과정 중 모든 전문교과에 대한 현장실습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진행상황: ① 논변 및 연결망분석을 통해 표시과목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② 전문교과 표시과목 재구조화 방안 및 해당 자격 교사 양성기관의 기본이수과목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추가조사(델파이, 인터뷰, 설문)를 준비 중이다.
 ③ 일부 대학교를 중심으로 4주 현장실습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및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시과제 3

초등진로전담교사 활동 매뉴얼 개발 연구

과제기간: 협의 중

과제목적: 초등진로전담교사 활동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초등학교에 배치될 진로전담교사의 직무 및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초등진로전담교사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하여 초등단계에서 진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수행 과제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비중) 적정화 워크숍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와 교육부는 산업인력 양성을 촉진하여 인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 교육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비중) 적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비중) 적정화 워크숍 주요 내용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비중) 적정화 워크숍이 2월 3일과 4일에 걸쳐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중등단계 직업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장학관 및 장학사를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약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첫째 날인 2월 3일, 한국직업교육학회 이광호 회장의 개회사와 중등직업교육 교장단 중앙 협의회 김정일 회장의 환영사,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박춘란 국장의 축사로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이후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김홍순 과장이 '2016년 직업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서울대학교 김진모 교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적정규모 최적화 방안'을 공유하였다.

둘째 날인 2월 4일, 해남공업고등학교 김상호 교장은 특성화고 입학전형 운영사례를 공유하였고,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배동윤 교감은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운영 사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유병구 연구사가 고교 입학정원 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후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운영과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운영, 일반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정원 배정에 대한 종합적인 토의를 진행하였다.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운영 활동

2차년도 진로직업교육 정책포럼

제7차 진로직업교육 정책포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도입 현황과 과제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는 2015년 8월 11일(월) 오후 2시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문승태 과장과 주제 발표자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일규 선임연구위원, 토론자인 광희중학교 조남진 진로진학상담교사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서지연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포럼위원들을 초청하여 '제7차 진로직업교육 정책포럼' 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교육부 관계자, 연구자, 중등단계 학교 관계자,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도입 현황과 과제' 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8차 진로직업교육 정책포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의 현황과 과제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는 2015년 10월 5일(월) 오후 2시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구본억 사무관과 주제 발표자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센터 변숙영 센터장, 토론자인 광주공업고등학교 이영주 교장선생님과 (주)정진멀티테크놀로지 양승렬 대표이사를 비롯한 포럼위원들을 초청하여 '제8차 진로직업교육정책포럼' 을 개최하였다. 이 날 포럼에서는 교육부 관계자, 연구자, 직업계고 관계자,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의 현황과 과제' 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성공 요건, 운영 효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제도 난립의 문제, 도제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포럼위원들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효과적 운영에 대해 큰 기대를 비쳤다. 그러나 도제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독일과 스위스식 직업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제도 확산을 위한 모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도제학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졸업 학생이 협력 산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병역문제, 범용 시설 및 기자재의 보유 문제, 도제반/비도제반을 구분한 운영 방침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포럼에서 다루어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의 현황과 과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시범운영하면서 발생한 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확인하고, 향후 전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제도의 확산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과 정부와 각 단위학교의 역할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운영 활동

3차년도 진로직업교육 정책포럼

제9차 진로직업교육 정책포럼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전문교과 교원 양성 및 역량강화 방향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12월 7일(월) 오후 2시 주제발표자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승환 부연구위원, 토론자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김유권 수석교사를 비롯한 포럼위원들을 초청하여 '제 9차 진로직업교육 정책포럼' 을 개최하였다. 이 날 포럼에서는 교육부 관계자, 연구자, 직업계고 관계자,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전문교과 교원 양성 및 역량강화 방향' 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10차 진로직업교육 정책포럼

중등 직업교육 규모(비중) 확대 지원 방안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는 지난 3월 14일(월) 오후 2시 주제발표자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동열 선임연구위원, 토론자인 성동공업고등학교 강연홍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포럼위원들을 초청하여 '제10차 진로직업교육 정책포럼' 을 개최하였다. 이 날 포럼에서는 교육부 관계자, 연구자, 직업계고 관계자,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등 직업교육 규모(비중) 확대 지원 방안' 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확한 중등직업교육 및 직업계고 수요 확인 방안, 일반계고를 포함한 거시적인 지원 방안, 교육 인력 개선 방안, 직업계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유도 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산업계 수요를 고려했을 때 중등 직업교육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는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였다.

그러나 지원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일반계고 이번 포럼에서 다루어진 중등 직업교육 규모(비중)확대 지원 방안은 중등 직업교육에 관한 주제이지만 거시적으로 우리나라 중등단계 교육 체계 내에서 여타 교육기관 입학 정원과의 관계, 중등교원 인력의 역량 개선 방안, 직업계고 학생의 졸업 후 진로 등을 고려한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상기시키는 자리였다.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운영 활동

3차년도 진로직업교육 정책포럼

제11차 진로직업교육 정책포럼

특성화고 보통교과 운영방안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는 지난 5월 21일(월) 오후 2시 주제 발표자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업 선임연구위원과 토론자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선화 선임연구위원,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 이진구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포럼위원들을 초청하여 '제11차 진로직업교육 정책포럼' 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교육부 관계자, 연구자, 직업계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특성화고 보통교과 운영 방안' 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성화고 보통교과 교육과정 편성, 교과서 개발, 교원 배치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보통교과의 중요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 유형과 지역에 따라 보통교과 운영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가교육과정에서 특성화고에 맞춘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성화고용 보통교과 교과서 개발과 관련해서는 교과서 개발은 전문적인 분야로 각급 학교에서 수행하기 어려우며, 현재의 교과서 수준 보다는 높고 일반계고 검정 교과서 보다는 수준이 낮은 중급 교과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포럼에서 다루어진 특성화고 보통교과 운영방안은 기존에 특성화고등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보통교과를 전문교과의 보조적 혹은 수단적 교육과정으로 인식하던 것과는 달리 독립적 교육과정으로 인식함으로써 특성화고 내 보통교과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운영 활동

2, 3차년도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서울대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는 2013년 센터장을 비롯한 연구책임자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과장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6년 현재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운영위원이 활동 중에 있다.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 명단

구분	이름	소속 및 직급	임기
위원장	김진모	서울대학교 교수	2013. 10. 16 ~ 현재
위원	정철영	서울대학교 교수	2013. 10. 16 ~ 현재
위원	이 찬	서울대학교 교수	2013. 10. 16 ~ 현재
위원	정진철	서울대학교 교수	2013. 10. 16 ~ 현재
위원	정진화	서울대학교 교수	2013. 10. 16 ~ 현재
위원	김홍순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과장	2014. 04. 03 ~ 현재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 활동 연혁

구분	일시	논의사항
6차	2015년 8월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3분기 성과 및 평가 2015년 3분기 이후 운영 계획
7차	2015년 10월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4분기 성과 및 평가 2016년(3차년도) 운영 계획
8차	2015년 12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2차년도) 성과 및 평가 4차 중등직업교육 정책 토론회 계획(안)
9차	2016년 3월 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과제 및 수시과제 논의
10차	2016년 5월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과제 추진방향 논의 진로직업교육 분야 현안 및 이슈 논의

진로직업교육 관련 이슈 및 해외동향

진로직업교육 관련 논문 리뷰

중등단계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국내외 논문 4편을 리뷰 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직업교육 관련 이슈 및 해외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중등단계 진로직업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선취업-후진학 체제 이후 특성화고 학생들의 변화 양상

김정숙, 나민주. (2015). 선취업-후진학 체제 이후 특성화고 학생들의 변화 양상: A학교 사례연구. *교원교육*, 31 (3), 219-245



이 연구는 선취업-후진학 체제 이후 특성화고 학생들의 변화 양상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A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문서정보, 기록정보, 면담, 직접관찰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①학생 자원, ②학습태도, ③생활태도, ④진로선택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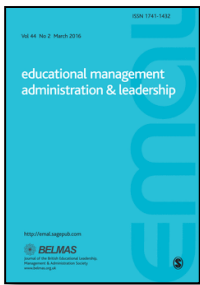
연구 결과, 선취업-후진학 체제 이후 ①학생 자원 측면에서 학생들의 특성화고 지원 동기가 확고한 진로의식(우선 취업)으로 변화되었으며,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학습태도 측면에서 자기주도학습 태도를 가진 학생이 증가하였고, 학생들의 학습내용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였고, 높은 학습의욕 및 성취감이 확인되었다. 또한 학업중단률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생활태도 측면은 선취업-후진학 체제 이후 긍정적인 정서로 바뀐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스스로 규칙을 지키려는 의지, 자신감과 자부심, 긍정적 자의식, 자기관리 능력 증대 등이 확인되었다. ④진로선택 측면에서는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변화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취업-후진학 체제 이후 그 성과를 설문조사나 규범적 조사가 아니라 사례연구를 통해 성과와 실제 수혜자인 특성화고 학생들의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시도였다. 또한 선취업-후진학 체제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력경로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일반계고에 비해 소외 받던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정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우수한 학생 자원을 확보하고 질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직업교육 관련 이슈 및 해외동향

학교장 리더십에 대한 정책적 지방분권화의 효과

Gessler, M., & Ashmawy, K. I. (2016). The effect of political decentralization on school leadership in German vocational schools. *Educational Management Administration & Leadership*, 44(2), 184-204.



이 연구는 2006년 독일교육개혁 이후, 독일 직업교육에서 학교장 리더십에 관한 정책적 지방분권화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3가지의 연구문제는 ①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정도는 어떠한가? ②직업교육은 교육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갖는가? ③학교운영계획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때, 학교장 리더십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15명의 학교장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적 지방분권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선출단을 수반하며, 학교는 자유재량에 의해 학교에 맞는 계획을 설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교장은 참여적 리더십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각 학교가 재량권을 갖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칙과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이해관계자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 연구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각 학교의 재량권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번 검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진로성공을 이끈 멘토링 경험 분석

San Miguel, A.M., & Kim, M.M. (2014). Successful Latina Scientists and Engineers: Their Lived Mentoring Experience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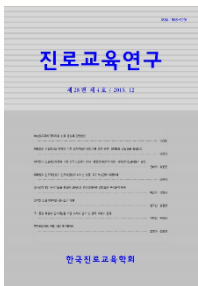


이 연구는 과학 및 공학 분야의 라틴계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주요한 역할을 한 멘토링 경험을 분석하였다. 성공한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 멘토링에 있어서 다양한 멘토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유형의 멘토링이 진로발달에 효과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멘토들의 지원과 격려가 필수적이며 멘토와의 관계가 상호동의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진로성공을 이끈 공통적인 특성들로는 목표 지향성, 네트워킹,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열정과 믿음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식적, 비공식적 멘토링 프로그램이 라틴계 학생들의 과학과 공학분야의 진로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진로직업교육 관련 이슈 및 해외동향

특성화고 재학생의 진로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분석

강혜영, 고흥월, 임은미. (2015). 특성화고 재학생의 진로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분석. *진로교육연구*, 28(3), 45-63.



이 연구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경험을 분석하여, 특성화고 학생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진로지원의 시사점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문제는 ① 특성화고 선택 과정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② 특성화고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무엇을 경험하는가? ③ 특성화고 학생들은 진로계획 및 준비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로, 특성화고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접 질문지를 통한 개인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내용은 합의적 질적 분석(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지침에 따라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연구문제 ①에서 특성화고 선택의 주요 요인은 낮은 학업성적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취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했다는 응답도 함께 나타났다. 연구문제 ②에서 스스로의 경험에서는 학교에서의 성취경험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향상, 진로목표 설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성화고에서 제공하는 실습중심 수업과 자격증 취득, 수상은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업 지속, 진로계획 수립 등의 동기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③에서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모두 경험하며, 꿈이 있으나 현실과의 연결을 위한 구체적 정보, 실행 방안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성화고 학생의 학교 선택과 학교 내에서의 경험을 학생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시도였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이 진로발달 과업을 원만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인으로서의 자부심 보유, 전공전환이 가능한 유연한 학사 운영, 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정서적 분리를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 제공이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업에 대한 낮은 자신감과 부정적 정서는 삶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과거의 성적보다 미래의 진로목표에 의미를 부여하고 진로를 선택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사의 우호적인 태도와 밀착 취업지도는 학생의 진로준비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의 진로지원에서의 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소식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연구원 추가·변경

선임연구원

2015년 4월 1일자에 임용된 조영아 박사가 2016년 1월 1일부로 순천향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임용됨에 따라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을 2015년 12월 31일자로 사임하였으며, 전영욱박사가 2016년 4월 1일자로 임용되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향후 일정

일정	주요 일정
2016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집담회 개최
2016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 진로직업교육 정책포럼 • 11차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 • 뉴스레터 발간
2016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대회 개최